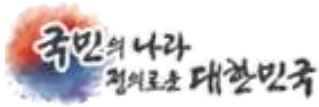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보 도 자 료		 국민의 나라 정의로움 대한민국
담당자	• 배포 : 2019. 8. 5.(월) • 국토인프라실 김홍중 실장 / 윤민호 연구원 • ☎ 031-389-6445/515 • khj1573@kaia.re.kr / manho1201@kaia.re.kr		
보도일시	• 2019. 8. 6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		

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(OVICE) 확대 · 개편

- '19년 8월, 파키스탄, 탄자니아 등 14개국 15,000건의 정보 제공 -

-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손봉수, 이하 국토진흥원)은 중소 · 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거점국가별 맞춤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'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(이하 OVICE*)' 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, 8월부터 확대 · 개편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.

* OVICE : Overseas Information System for Construction Engineering

- OVICE는 해외 진출 대상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 · 중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'14년부터 연구 개발(R&D*)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보시스템이다.

* 해외 거점별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개발 / '14. 7~'19. 12 / 5,716백만원

- 기존 해외건설관련 정보서비스는 주로 대기업 중심의 건설공사 및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국가별 공사 발주정보, 건설환경, 건설시장 동향, 건설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,
- OVICE는 중소 건설 ·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업무수행 지원을 위해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해외진출 대상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법·제도, 건설기준, 인허가, 입찰 · 계약, 설계, 사업 관리(자재, 장비, 노무, 재무, 세금, 품질, 환경, 클레임 등) 등 기술정보 및 실제 진출 사례를 홈페이지(<http://www.ovice.or.kr>)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.

□ 2016년 8월 1일부터 정보서비스를 시작한 OVICE는 거점국가별로 ▲주제별 정보서비스 ▲해외진출 가이드북 ▲맞춤형 정보서비스 등을 매년 1~2회 확대·개편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이번 개편을 통해 ‘주제별 정보서비스’*는 기존 12개 거점국가 약 13,000여 건의 정보를 14개 거점국가 약 15,000여 건의 정보로 확대했으며, ‘19년 말까지 15개 거점국가** 약 17,000여 건의 정보로 확대할 예정이다.

*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각종 건설엔지니어링 정보를 32개 서비스 주제(영업/기획, 입찰/계약, 조사/설계, 사업관리, 공통일반 등)로 분류하여 제공

** 거점국가(15개국) : (‘15)베트남, 인도네시아, (‘16)페루, 필리핀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(‘17)터키, 케냐, 미국, (‘18)스리랑카, 캄보디아, 우즈베키스탄, (‘19)파키스탄, 탄자니아, 콜롬비아

○ ‘거점국가별 해외진출 가이드북’*은 파키스탄, 탄자니아를 추가하여 14개 거점국가로 제공대상을 확대했으며, ‘19년 말까지 콜롬비아를 추가할 예정이다.

* 거점국가별 해당 국가 초기진출단계에 필요한 정보(건설관련 법체계, 인허가 관련 사항, 주요 관습 및 시장정보 등)를 제공

○ 또한,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·중견기업의 실무지원을 위한 ‘맞춤형 정보서비스’*는 우즈베키스탄을 추가하여 12개 거점국가로 적용대상을 확대했고, ‘19년 말까지 파키스탄 등 3개국을 추가할 예정이다.

*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거점국가별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프로세스(기획, 입찰, 계약, 사업수행, 종료)에 따라 분류하여 제공

○ 그 외에도 중소기업이 취약한 계약 및 클레임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OVICE에서 제공하고 있는 ‘해외건설 계약관리와 클레임’ 정보에 FIDIC* 2017 개정판 안내(‘19. 9 예정), 계약용어 해설(‘19. 10 예정) 등의 정보를 추가하여 확대·제공할 예정이다.

* FIDIC(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-Conseils) : 건설산업계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,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표준계약조건을 제공

- 국토진흥원 관계자는 “이번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(OVICE) 확대·개편을 통해 해외정보 수집·활용이 취약한 중소·중견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예상된다.”라며,
- “올해 말까지 콜롬비아를 추가해 정보서비스 제공 거점국가를 15개 국가로 확대하고, 업계 의견수렴 및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www.kaia.re.kr)

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&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4,822억 원('19년 기준)의 R&D 예산을 집행·관리하고 있으며, 주요사업으로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(건설기술 연구사업, 플랜트연구사업, 도시건축연구사업, 국토공간정보연구사업, 교통물류연구사업, 철도기술연구 사업,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등), 건설·교통신기술 인증사업 및 기술가치평가 사업이 있다.

□ 과제개요

- 사업명 : 건설기술연구사업
- 과제명 : 해외 거점별 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개발
- 연구기간 : '14. 7~'19. 12
- 연구비 : 5,716백만원(정부 5,716백만원)

[백만원]

구 분	총연구비	'14	'15	'16	'17	'18	'19
연구비	5,716	481	1,298	1,432	989	765	751

- 주관연구기관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조정근 연구책임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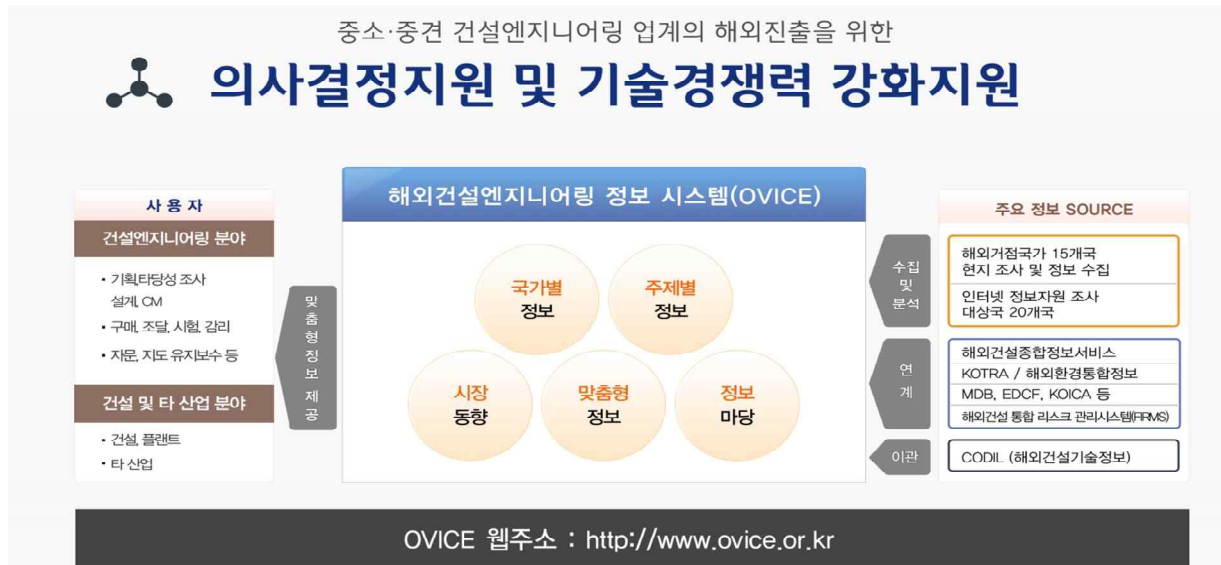
□ 연구목적 및 내용

- 연구목표
 - 해외 거점국가별 수요자 맞춤형 건설엔지니어링 핵심기술 분석·제공을 통해, 중소·중견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해외진출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 지원하여 해외수주 확대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
- 주요 연구내용
 - 타 정보시스템(KOTRA, 해외건설협회 등)과 데이터 중복 방지, 활용도 개선을 위한 표준정보기술 기반 정보시스템 설계 및 플랫폼 개발
 - 거점국가별 진출 희망 기업의 사업 수행 역량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지원 Business Intelligence 모델 개발
 - 거점국가별로 입찰, 계약, 인허가, 타당성조사, 설계 및 사업관리 등 사업 단계별 필요한 엔지니어링 기술정보 조사·분석
 - 해외 프로젝트 관련 중소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수익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통합 리스크 관리시스템 개발

참고 2

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(OVICE) 개요 및 활용실적

□ OVICE 개요



□ OVICE 활용실적

○ 홈페이지 활용실적

(’19. 7. 23 기준)

기간	방문자수	다운로드건수	페이지뷰	DB구축
2016. 8 이전	-	-	-	2,379
2016(8. 1 ~ 12. 31)	23,783	17,073	208,590	828
2017(1. 1 ~ 12. 31)	115,510	88,990	924,008	6,021
2018(1. 1 ~ 12. 31)	582,666	526,104	2,195,420	3,887
2019(1. 1 ~ 7. 23)	409,680	272,885	1,322,780	1,499
누 계	1,131,639	905,052	4,650,798	14,614

○ 홈페이지 월별 방문자수 추이

